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200명이 함께 뚝다

도교육청, 2026 경기진학교육 정책 추진 실행계획 안내



전형의 이해 ▲대입진학상담의 이해와 방법 등 실무 중심의 강의로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역량중심 면접평가(서울대) 분석 ▲2028학년도 대입전형(동국대) 분석 등 대학별 입시 전략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대입과 관련된 강이뿐 아니라 분과별 협의회 시간을 마련해 분과별로 2026년에 펼칠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리더교사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대표교사 분과 활동을 통해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선발 인원을 확대한 한편,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여 경기도 진학 지원 체계의 양적·질적 확대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경기도·경기FTA센터, 중동지역 수출 물류비 지원

중동 전쟁 여파로 물류비 급등. 도내 수출기업 부담 확대

도내 기업 50개사 최대 500만원 지원으로 수출 지속성 확보 및 경쟁력 유지

미국-이란 전쟁 발발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6 중동지역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2026 중동지역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중동지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분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수출 신고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제 해상·항공 운임, 창고료 등 물류비 총액의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 기반의 1차 평가(정량·정성)와 2차 물류 서류 적격 평가 및 중북 수혜 조화를 거쳐 총 50개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단순 비용 보전을 넘어, 중동 시장 내 거래 지속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전쟁 상황 속에서도 도내 기업이 기존 바이어와의



거래를 유지하고 신규 수주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불법촬영에 맞서 카메라 전파 신호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 기반의 1차 평가(정량·정성)와 2차 물류 서류 적격 평가 및 중북 수혜 조화를 거쳐 총 50개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한 장비는 기존 전파 탐지기와 달리 10MHz~8.0GHz 대역의 전파 파형을 LCD 화면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으며, Wi-Fi·블루투스·휴대폰 통신망 등 신호의 통신 유형을 자동으로 식별한다. 탐지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넓어짐에 따라

더욱 정밀한 불법촬영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목록으로는 적외선탐지기 6대, 열화상카메라 2대, 전자파탐지기 2대, 영상수신탐지기 1대, 전파탐지기 2대, RF 스펙트럼 분석기 2대가 있다. 도내 공공기관, 학교, 민간 다중이용시설 소유주나 관리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빌릴 수 있다.

대여 신청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누리집(gg.go.kr/woman)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여성안심사업팀(031-8008-8027)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송민수 기자

하남시, 반려견놀이터

'무인운영 시스템' 도입

하남시는 3월 19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반려견 놀이터 2개소(미사아일랜드 팻존, 감일 팻존)에 '무인운영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출입 수기명부를 QR 기반 전자 방식으로 전환해 이용 불편을 줄이고,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반려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설 관리의 효율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무인운영 도입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운영시간은 기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된다. 확대된 시간 중 미사아일랜드 팻존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감일 팻존은 오전 6시부터 10시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를 무인으로 운영해 시간대별 공백을 보완한다.

정기 휴무일은 미사아일랜드 팻존은 매주 월요일, 감일 팻존은 매주 화요일로 지정해 소독 및 시설 점검 시간을 확보한다. 해당 놀이터에는 IoT 기반 출입인증 시스템이 적용돼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파주시, 2026년 미래

기술교육학교 운영

파주시는 2024년부터 추진해 온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하며,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최근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는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년층에게 유망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는 경기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전공이론과 실습, 실전 프로젝트를 병행한 교육과정과 모의면접, 기업설명회, 구인 연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 예정인 '팹리스 에스오시(SoC) 반도체 설계' 모집 인원은 18명이며, 미취업 경기도민(파주시민 우대)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5월 11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누리집(https://kgkorchamhrd.net)을 통해 가능하다. 1차 서류 접수 후 2차 면접을 통해 교육생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며, 교육은 5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이천시, 2026년 과수

화상병 예방 총력

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 330곳(182ha)을 대상으로 4회분의 공동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개화기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작물에 발생하는 검역병해충으로, 감염 시 가지와 줄기, 과실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별도의 치료 방법이 없어 발생 시 공격 방제를 해야 하고, 인접 기주식물까지 제거해야 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병해이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예방 중심의 방제 체계를 운영 중이며 겨울철 예방 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봄철 세균 활동 시기에 맞춰 개화기 약제 방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천시 화상병 방제는 총 4차에 걸쳐 진행되는 데, 1차는 개화 전, 2차는 개화 초기(50% 개화), 3차는 만개기(2차 방제 후 5~7일 이내), 4차는 미생물 약제로 보완 방제까지 해서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남양주시, 서울경춘고속도로

화도IC 진입램프 확장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 착공된 서울경춘고속도로 화도IC 서울방향 진입램프 확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28일 정식 개통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서울경춘고속도로 화도IC 서울방향 구간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1차로였던 진입램프를 2차로로 확장하고 공사를 진행해왔다.

총 사업비 13억원의 금남5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 등으로 확보했으며, 사업시행은 서울춘천고속도로㈜가 맡아 진행했다. 도로 확장은 지난 15일 이미 마무리된 상태로, 현재는 준공검사 등 마지막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의왕시, '2026 왕림마을 옛길걷기' 성료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3월 21일, 전문 역사 해설사와 함께하는 「2026 해설 따라 떠나는 왕림마을 옛길걷기」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의왕문화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이동수의 왕림문화공원을 비롯한 문화원 회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우리 고장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 걷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흥을 돋우는 의왕문화원 농악단의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고천체육공원을 출발해 ▲김유 묘역 ▲김인백 선성 묘 ▲김우중 선생 신도비, 청평사 등을 거쳐 백운사 주차장에 이르는 약 4km 구간을 걸었다.

특히, 이번 걷기 행사에서는 3명의 전문 역사해설사가 팀별로 동행해 각 유적지에 얽힌 실화와 역사적 배경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참가 시민들이 지역 향토 문화의 정취를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김성제 시장은 "완연한 봄기운 속에 열린 옛길 걷기 행사가 선조들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우리 고장의 뿌리를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선×박세리, 용인에서 희망의 트랙 달린다



복합스포츠문화공간 '세리박with용인'(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76)에서 2026년 3월 21일(토), 골프 레전드 박세리와 가수 선이 함께하는 기부런 행사 「SERI PAK with 용인 ON THE SAME TRACK」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선 X 박세리와 함께 뛰는 희망의 트랙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북카페 A와 야외 잔디 운동장을 무대로 진행되었으며, 선착순으로 모집된 120명의 시민 참가자들이 참가비 전액을 기부하는 나눔의 뜻을 모아 뜻깊은 자리를 완성했다.

행사를 함께한 가수 선은 "같은 트랙을 달리며 나눔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

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세리박with용인'은 스포츠와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이번 기부런을 포함해 매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해 나가고 있다.

관계자는 "세리박with용인은 앞으로도 매월 다양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문화적 가치를 나누는 공간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히며 지역 대표 복합스포츠문화공간으로서의 비전을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기부가가 이뤄지는 승일희망요양병원은 지난해 3월 대한민국 최초로 용인에 문을 연 루게릭병 전문병원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환자들에게 치료와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시흥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확대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3월 20일 능곡여울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확대 추진에 나선다.

이번 협약식에는 시흥시를 비롯해 시흥교육지원청,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내 초·중·고 27개 학교, 7개 복지기관(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시흥시목감종합사회복지관·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오이도문화복지센터·경기시흥남부지역자활센터·행복마을윙골·거모2동경로당)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은 배식 후 남은 음식을 폐기하지 않고 먹거리가 필요한 이웃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다.

후 남은 음식을 폐기하지 않고 먹거리가 필요한 이웃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다.

예비식을 기부하는 학교와 배분을 담당하는 복지기관을 연계하고, 위생적인 수거·배송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이 사업은 27개 학교와 7개 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처리 비용 절감은 물론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적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다.

화성특례시, 전국 최초 지자체형 영재교육원 개원

화성특례시·화성시 인재육성재단·서울대·서울교대 '4자 협력 거버넌스' 기반 새로운 영재교육 모델 제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1일 다원이음터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 개원식을 열어 영재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영재교육원은 화성특례시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서울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가 참여하는 '4자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설립됐다.

개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서울대학교 및 서울교육대학교 관계자,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해 영재교육원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시는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관내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영재교육원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과학 및 정보 분야 중심의 창의적 연구 활동과 인성·리더십 교육 등 총 100시간의 심화 과정



을 제공한다.

특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시흥영재교육원은 첨단 과학 이론과 최신 글로벌 연구 동향을 교육 과정에 접목하며,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초·중등 맞춤형 영재교육 교수법을 제공한다. 시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교육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자체

송민수 기자

수원특례시, 제7회 새빛세일페스타 연계 물기안정 캠페인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제7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3월 20일~29일)과 연계해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장려하는 '물기안정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21일 행궁동 일원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지역경제와 공무원,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들에게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안내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독려했다.

수원시는 새빛세일페스타 기간 4개 구청과 함께 릴레이 캠페인을 한다. 팔달구를 시작으로 장안구(3월 23일), 권선구(3월 24일), 영통구(3월 26일)가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물기안정과 할인 행사,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제7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3월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대규모점포 등이 참여하는 할인·사는 행사다. 행사 기간 참여업체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20%를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환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수원시는 이번 캠페인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물기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소비 문화를 지속해서 확산할 계획이

송민수 기자